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후보자
이력 및 출마의 변

김 정 호

대의원 의장 후보자 이력 및 경력사항

	성 명	김 정 호
	생년월일	1959 년 11 월 23 일생 (만 64 세)
	근 무 처	대전보훈병원
	주 소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46-15, 501동 2802호 (도룡동)
학 력 및 경 력 사 항		
1978년 광주인성고등학교 졸업		
1985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4년 원광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2017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1990년 산부인과 전문의		
전) 모아산부인과 원장		
전) 미즈모아산부인과 대표원장		
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전지회장		
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현) 대전보훈병원 진료부장		

출마의 변

존경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의원회 의장 후보인 김정호입니다.

우리 단체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단체로서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원들은 오랜 기간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트렌드 속에서 산부인과의사로서의 자리매김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로서의 사회적 위상이나 경쟁이 심화된 경영 환경이나 노력에 못 미치는 현실 보상 등 우리가 놓인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더구나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서 보듯 의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회원 한 분 한 분이 이를 극복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단체가 되어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단체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합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회의 위상부터 강화해야 하는 것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일차적 과제일 것입니다.

한편 과거에 회장선출방식 차이를 이유로 별도의 독립된 단체가 조직되면서 분열된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본 회의 힘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열의 책임을 논하자는 것은 만사지탄이나 조직이나 단체의 와해는 외부의 힘에 의한 것보다는 내부 분열에 의해 붕괴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어쨌든 지난 수 년 간 통합(다른 적당한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을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리멸렬한 상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산부인과의사회를 재건할 방안을 논해야 합니다.

본 산부인과의사회의 대의원회는 회원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가 그 역할을 충분하게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때론 추궁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직업적 사명감과 자존감 그리고 난관을 헤쳐 갈 힘과 당당한 길을 잃지 않도록 본 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그간 혼자 개업했다가 시류에 따라 동업 했다가, 그리고 폐업한 후 봉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동료 중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즈음 산부인과의사로서의 통상적인 모습의 부분 부분을 이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의장 선거에 입후보하며 그 동안 제가 몸담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전지회와 본회 대의원운영위원회의 회무에 참여하면서 그에 맞는 역량과 책임감을 다 해 일해 왔음을 피력합니다. 그러하니 제가 의장의 직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대의원회를 이끌어 오신 고문님들이신 이성호, 故김철수, 육순오, 김승일, 장경석, 故원대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게 대한산부인과대의원회가 굳건히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후보

김 정 호 올림